



# 뜨겁다! 순위경쟁

# 더 뜨겁다! 내부경쟁

“지지 않겠다”는 이범호와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나지완. KIA가 중심타선의 내부 경쟁으로 순위 싸움의 힘을 얻고 있다. 이범호와 나지완은 지난해와 다른 2016 시즌을 보내고 있다. 동반 슬럼프로 마음 고생을 했던 두 사람은 올 시즌 KIA 타선의 든든한 기동 역할을 하고 있다. 부지런히 홈런을 날리고, 주자들을 불러들이면서 두 사람은 동반 ‘30홈런-100타점’을 그리고 있다. 나지완은 이미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섰다. 2009년 23개의 홈런이

자신의 최다 기록이었지만 27일 현재 25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지난해 28차례 담장을 넘기며 자신의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던 이범호 역시 25홈런으로 2년 연속 자신의 기록 경신을 준비하고 있다. 홈런과 함께 타점도 따라오고 있다. 나지완이 86타점, 이범호가 84타점을 만들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생애 첫 100타점 고지를 노리고 있다. 이범호에게는 친구 김주찬과 함께 후배 나지완이 훌륭한 경쟁자이다. 이범호는 “올 시즌 우리 선수들이 준비

**이범호·나지완 나란히 30홈런-100타점 도전**  
**이 “지고싶지 않다” 나 “4번타자로 100타점”**  
**김주찬 100타점도 순항...KIA 가을잔치 성큼**

많이 했고, 고민한 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김)주찬이와 (나)지완이가 잘 쳐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면 안 되지 않겠나.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고 선의의 경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지완은 이에 ‘영광’이라고 답을 했다. 나지완은 “좋은 선배들 사이에서 4번 타자로 타격을 하는 게 영광이다. 4번 타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고 싶다”고 밝혔다.

‘30홈런-100타점’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나아가고 있는 두 사람은 홈런보다는 타점을 말한다. 이범호는 “홈런을 쳐서기면 좋지만 그 한 경기로 끝내려고 한다. 다음 경기에서도 홈런을 치면 당연히 좋지만 오늘은 오늘이다.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나지완도 “홈런에 대한 욕심은 나지 않는다. 100타점이 쉽지 않은데 중심타자로서 100타점을 하고 싶다. 그게 내 목표다”고 언급했다.

두 사람의 홈런 개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김주찬도 100타점 고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18홈런 86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주찬은 “최근 타격감이 좋지 못했다. 맞추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홈런 욕심은 없다. 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주찬-나지완-이범호로 잘 짜인 KIA의 클린업 트리오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가을잔치로 가는 티켓을 겨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왼쪽부터 정윤환, 유승철, 김석환.

## “챔피언스필드에 서도록 노력하겠다”

**‘예비 호랑이’ 효천고 유승철·동성고 김석환·진흥고 정윤환, KIA 경기 관람**

‘예비 야구 호랑이’들의 유쾌한 챔피언스필드 나들이였다. KIA와 두산의 경기가 열린 지난 27일, 2017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KIA의 선택을 받은 효천고 투수 유승철, 동성고 외야수 김석환, 진흥고 투수 정윤환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초·중·고 시절부터 라이벌이자 친구로 함께 해왔던 이들은 내년 시즌부터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같은 팀에서 야구를 하게 됐다. 구례에

서 살고 있는 유승철이 가족들과 함께 광주 나들이를 오면서 세 선수의 야구장 회동이 이뤄졌다. 직접 티켓까지 끊고 경기장에 입장한 세 사람은 모처럼 야구선수가 아닌 야구팬으로 그라운드를 내려다보았다. 이들은 선배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양현종이 예리한 작구로 삼진을 잡아내자 일제히 ‘우와’를 외친 이들은 담장을 넘긴 이범호의 스윙에도 감탄사를 쏟아냈다. 전광판

을 통해 진행되는 장내 이벤트도 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무엇보다 관람석을 채운 1만6604 관중의 응원이 이들에게는 인상적이었다. 세 사람은 “많은 팬 앞에서 경기를 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 그라운드에 설 생각을 하니 떨리고 기분이 좋다. 빨리 챔피언스필드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리우 양궁 석권...전국은 양궁 열풍

**광주 국제양궁장 무료체험교실 인기...주말강좌 요청 쇄도**  
**남자 실업팀 추진도...전북·청주 등 학생팀 창설·시설 늘려**

리우올림픽 전 정목 석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양궁이 ‘올림픽 붐’을 타고 전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은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성현 전북도청 양궁팀 감독과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성진을 배출한 양궁 메카다. 대학부에 한일장신대(남), 우석대(여)팀과 일반부에 전북체육회(남), 전북도청(여)팀이 이미 구성돼 있고, 초·중·고도 각각 3팀씩 있어 타 지역보다 기반도 잘 닦여 있다. 올림픽이 끝나자 전북양궁협회에는

“양궁을 시켜보고 싶다”는 학부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양궁 붐’ 분위기에 맞춰 초등부와 중등부 각각 1개 팀을 추가로 창설할 계획을 꾸리고 있다. 리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기보배와 최미선 등 전통적으로 여자 양궁에서 강세를 보인 광주도 열기가 뜨겁다.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무료 양궁 체험교실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 신청받아 매주 화~목요일 2시간씩 양궁을 가르치는 체험교실은 올림픽 이후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주말에도 체험교

실을 열어야 한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남자 실업팀 창단도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양궁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김우진 등을 배출한 충북에서는 현재 초·중·고 20개 팀에서 70여 명의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청주시는 1994년 5월 ‘김수녕 양궁장’ 준공 이후 매년 시설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예천은 지역 출신인 김진호가 1979년 독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5관왕을 휩쓸어 ‘활의 고장’으로 알려졌다. 군청에 양궁계가 있을 정도이며 남·여 2개 양궁팀은 국가대표도 다수 배출했다.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는 전남 공무원 5명을 배치했고, 양궁체험 프로그램에도 연간 1만5000여 명이 다녀간다. /연합뉴스

## 김현수 4경기 연속 안타 행진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가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는 메이저리그 복귀전에서 무안타로 침묵했고,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시즌 3번째 볼넷을 범했다. 김현수는 28일 뉴욕 양키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안타이자 3경기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로 시즌 타율을 0.321로 올렸다. 9회 적시타로 시즌 15번째 타점도 수확했다. 볼티모어는 양키스에 5-13으로 크게 져 3연패를 당했다.

김현수는 1회 1사 첫 타석에서 양키스 우안 선발 채드 그린의 시속 151km짜리 초구 직구를 받아쳐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이후 발타로 물러난 김현수는 4-13으로 승부가 기운 9회 무사 2루에서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로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8일 만에 빅리그 무대로 돌아온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는 무안타에 그쳤다. 이대호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20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이대호는 트리플A에서 타율 0.519(27타수 14안타)를 기록한 뒤, 이날 메이저

리그로 복귀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안타는 나오지 않았다. 이대호는 2회초 첫 타석에서 화이트삭스 좌완 선발 호세 퀴타나의 시속 150km 투심 패스트볼을 지켜보다 루킹 삼진을 당했다. 5회에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7회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스코트 시애틀 감독은 9회 이대호의 타석에서 대타 애덤 린드를 내보냈다. 시애틀은 화이트삭스에 홈런 4개를 허용하면서 3-9로 패했다. 오승환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2-1로 앞선 8회초 1사 2-3루 위기 상황에 등판해 무실점을 기록했다. 8회 3루를 넘겨놓은 주자 2명에게 모두 득점을 내줬다. 8월 3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25일 만에 기록한 볼넷 세이브다. /연합뉴스